

로어전치사의 유형분류와 형태론적 및 문장론적특성에 대한 분석

리 명 용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를 잘하려면 단어를 많이 아는것과 함께 외국어문법학습을 잘하여야 합니다. 외국어학습에서 문법을 무시하면 안됩니다.》(《김정일전집》 제1권 221페이지)

다른 언어와 달리 로어는 단어들의 변화가 복잡하고 단어들의 결합에서 일치, 지배, 접합 등의 규칙에 의하여 서로 맞물리기때문에 로어학습에서는 단어와 함께 문법학습을 강화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이 글에서는 보조적품사로서 로어문장들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들중의 하나인 전치사들의 형태론적특성과 그의 유형분류, 전치사들의 문장론적구조들에 대하여 보려고 한다.

로어전치사의 형태에는 전치사들과 전치사조성의 유형별분류가 있다.

로어전치사와 전치사조성의 유형을 세가지 측면에서 분류할수 있다.

첫번째 측면은 파생성과 관계되는데 그에 따라 비파생전치사 в, на, до, к 등과 파생전치사 благодаря(…으로 하여), ввиду(…때문에), вплоть до(…때까지), сродни(비슷하다), посредством(…에 의하여) 등이 구분된다.

두번째 측면은 문장구성과 관계되는데 그에 따라 고유전치사들과 전치사적표현, 전치사등가어들로 구분된다.

고유전치사들에는 비파생전치사들과 파생전치사들이 들어가는데 문장을 구성하며 오직 이 기능에 참가하는 전치사들이다.

례: благодаря чему(…으로 하여), вопреки чему(…에도 불구하고), по отношению к чему(…에 대하여), среди кого/чего(…의 중간에), вроде чего(…과 같은), вместе с чем/кем(…와 함께), по сравнению с чем/кем(…와 비교할 때)

전치사적표현에는 일정한 조건들에서 출발품사에 대한 자기의 소속성을 보존하는 по соображениям экономики(경제의 판단에 의하면) — по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оображениям(경제적판단(고려)에 의하면), по причине болезни(병으로 인하여) — по этой причине(이 병으로 하여)와 같은 다른 품사들에서 파생된 단어형태가 있다.

례: идти в направлении голосов(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가다) — идти в северном направлении(북쪽방향으로 가다)

전치사등가어들은 모든 사전들에서 전치사로 지적되고 문맥들에서 전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단어형태들이다. 여기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형태들이 있으며 그것들중 일부는 일부 사전들에서 ниже(보다 낮은)처럼 전치사로 지적되는 순수한 부사비교급들에 속한다. 부사와 형용사비교급은 생격이나 чем + 명사주격을 지배하며 이때 두 비교대상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의 구성요소가 있을 때 다시말하여 비교의 정황이 없는 경우에 형용사나 부사의 비교급은 전치사의 기능으로 쓰일수 있으며 부사비교급의 위치에 오게 된다.

례: при росте до / свыше метра восьмидесяти (80m가 되지 않는/넘는)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부사 ниже /выше의 위치에 전치사가 쓰이였다. 이것

은 개별적인 단어형태들에서가 아니라 문법적형태들인 정도, 기준의 의미를 가진 모든 형용사와 부사들의 비교급에서 특징적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 례: ○ зарплата выше / свыше 2 тысяч рублей(2천Rbl이상의 로임)
○ люди старше 40 лет(40살이 넘는 사람들)
○ дети моложе 5 лет(5살아래인 아이들)
○ прыгнуть выше 4 метров (4m이상 조약하다)

세번째 측면은 형태론적류형과 관련되는데 파생전치사들과 전치사적표현, 전치사등어들이 구분된다.

로어전치사들은 비파생전치사와 파생전치사들로 구분되며 품사파생에 기초하여 вокруг(주위에), подобно(…과 비슷하게), порядка(대략)과 같이 한 단어로 이루어진 류형과 вплоть до(바투), вдали от(…에서 멀리 떨어져서), в направлении(…쪽으로)과 같이 두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류형, в связи с(…과 관련하여), по отношению к(…에 대하여)와 같은 세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류형 등으로 구분된다.

두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와 세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는 보통 자기의 구성에 하나 혹은 두개의 비파생전치사를 포함하고있다. 그리고 파생의 특성에 따라 в направлении(…쪽으로), по отношению(…에 대하여), в меру(…에 알맞게)와 같이 비파생전치사가 명사어간파생어의 앞위치나 형용사[параллельно с(…에 평행하여),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с(…에 따라)]와 부사[близко к(가까이에, …때가 거의 되여), далеко от(…부터 멀리)]의 뒤위치에 오는것들이 있다.

한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나 두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전치사적표현)도 반드시 단순전치사와 단순화된 전치사로 구분하게 된다. 한 단어로 이루어진 전치사들가운데서 단순전치사로는 именем(…이름으로), порядка(대략), близ(근처에)와 같은 전치사들이 될수 있으며 단순화된 전치사로는 вдали от(…에서 멀리 떨어져서), вглубь(깊숙이), сродни(비슷하다), вокруг(주위에)와 같은 전치사들이 될수 있다.

두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단순전치사들로는 в отношении кого/чего(…에 대하여), в адрес кого(…에게로, …앞으로; …에 대한), в направлении чего(…쪽으로)류형의 비파생전치사들이 앞에 있는 경우들이 될수 있으며 단순화된 전치사로는 вплоть до(바투), вслед за(…의 뒤를 따라), вкпе с(…와 함께)류형의 비파생전치사들이 뒤에 오는 경우가 될수 있다.

- 례: ○ Компьютер анализирует эту совокупность изображений на предмет соответствия заданному набору отличительных признаков меланомы.
(앞위치) (컴퓨터는 흑색종의 구별적표식들의 주어진 모임의 일치때문에 이 영상전체를 분석한다.)

- Длительное пребывание в самолетном кресле вкпе с взлетно-посадочными перегрузками и повышенным давлением в салоне самолета нередко приводит к смертельному исходу.(뒤위치)
(비행기의 손님좌석에서의 리착륙과부하와 높은 압력과 함께 비행기날개에 오래동안 있는것은 흔히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로어에는 단순화된 혹은 두 구성전치사들이 자기의 구성에서 같은 전치사이지만 갈라서 쓰이거나 붙여서 쓰이는 경우들이 있다. 여기에는 공간적의미를 가지고있는 합성전

치사 **в виду**(…이 보이는 곳을, …을 시야에 담고)와 단순화된 원인전치사 **ввиду**(…을 고려하여, …때문에)가 있다.

례: ◦ **Индейцы строят свои хижины в виду озера.**

(인디안인들은 자기들의 집을 호수가 보이는 곳에 세운다.)

◦ **Ввиду предстоящих экзаменов в техникуме прошу дать мне двухнедельный отпуск.** (앞으로 있을 전문학교에서의 시험을 고려하여 나에게 두주일간의 휴가를 주시오.)

우의 실례의 첫번째 문장에서는 비파생전치사 **в**와 단어형태 **виду**가 갈라져있으면서 공간적의미를 나타내며 두번째 문장에서는 붙여서 쓰이면서 원인의 의미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전치사자체의 형태적특성은 단어의 내적형태를 분석하는것이 더 합리적이다. 전치사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ому/чему**(…에 관하여, …에 대하여)는 《**по + отношение**여격 + **к**》로, 전치사 **несмотря на кого/что**(…에도 불구하고)는 《**не + смотреть**의 부동사 + **на**》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вблизи**(가까이에), **среди**(…의 중간에) 류형의 부사로부터 만들어진 많은 전치사들은 보다 정확히 따져보면 그자체가 명사의 파생어이다.

전치사 **вплоть до**(바짝)의 내적형태를 보면 많은 사전들에서 이 단어가 전치사로서 단의적의미로 제시되지만 두번째 구성부분인 비파생전치사 **до**와 함께 모든 실례들을 주고있다.

고유비파생전치사에는 전치사 **вне**를 포함한 하나로 된 비파생전치사 **в, на, до, к**와 기타 전치사들과 **из-за, из-под** 등과 같이 하나의 격을 지배하는 이중전치사, 몇개의 부류로 된 두개의 격을 가지는 합성전치사들이 있다.

로어전치사들은 다음의 문장론적특성을 가진다.

첫째로, 로어전치사들은 격을 지배한다는것이다.

이에 대하여 사전들에서 하나 또는 두개, 그 이상의 격을 지배하는 전치사들을 분리하여 리해할수도 있을것이다.

례: **в₁ + 대격 - в дом**(집으로); **в₂ + 전치격 - в доме**(집에서)

с₁ + 생격 - с мая(5월부터); **с₂ + 대격 - с гору**(산우에서부터); **с₃ + 조격 - с книгой**(책을 가지고).

둘째로, 로어전치사들은 명사적단어와의 결합에서 각이한 위치에 놓인다는것이다.

전치사들은 주로 앞위치가 기본으로 되지만 **спустя, ради**와 같이 일부 전치사들은 **неделю назад**(한주일후에), **неделю спустя**(한주일지나), **шутки ради**(풍담때문에)처럼 뒤 위치에 오게 된다.

례: ◦ **Я смотрю ей вслед - ничего в ней нет.**

(내가 그의 뒤를 바라보니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 **Я работаю не славы для.**

(나는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것이 아니다.)

셋째로, 전치사 **за**나 **против**와 결합한 명사가 령형태로 표현된다는것이다.

례: **Ты в школу или из?**(너 학교로 가니 아니면 거기서 오니?)

넷째로, 로어전치사는 단어형태에서뿐아니라 문장의 통신적구조에서 자립적으로 각이한 위치를 차지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이다.

문장의 억양에서 전치사의 기능을 보면 우선 за руку(손으로), по уши(완전히, 온통)와 같이 명사와 함께 전의어(독자적인 력점이 없는것으로 하여 력점이 있는 바로 앞단어의 일부처럼 발음되는 단어)적인 형태와 до головы(머리끝까지), перед домом(집앞에), от дома(집으로부터)와 같이 후의어(소리마루가 있는 단어의 뒤에 놓이면서 그것과 함께 활동적통일을 이루는 소리마루가 없는 단어)적인 형태를 형성할수 있는 능력과 명사의 력점과는 관계없이 вместе с другом(친구와 함께), в связи с болезнью(병과 관련하여, 병때문에), ради сына(아들을 위하여) 등과 같이 직접 력점을 가질수 있는 능력 그리고 주제부의 고정위치와 설명부에 력점이 올수 있는 능력이다.

례: ○ Перед уроком я его не видел.(주제부)

(수업전에 나는 그를 보지 못했어.)

○ Я стоял за ним.(설명부) (나는 그의 뒤에 서있었다.)

립중의 설명부나 да/нет과 같은 총적인 문제에 대한 한 단어로 이루어진 대답, 양태적설명부인 부분적인 문제에 대한 한 단어로 이루어진 대답도 그러한 능력으로 볼수 있다.

례: Я пришел не после дождя, а во (время).

(나는 비가 오기 전이 아니라 비가 올 때 왔어.)

다섯째로, 로어전치사들이 문장구조에서 각이한 위치를 차지할수 있는 능력 즉 각이한 품사에 대한 단어관계적위치를 가진다는것이다.

례: статуя царя в виде сфинкса — 명사관계위치

(스핑크스모양의 짜리의 동상)

известный благодаря средствам массовой информации запуск маленького робота — 형용사관계위치

(대중보도수단에 의하여 알려진 소형로봇의 생산)

Платье - из ситца. — 술어위치(옷은 꽃천으로 지은것이다.)

с целью найти(찾을 목적으로), в надежде узнать(알수 있다는것을 기대하면서), насчет поестъ(먹는것에 대하여) — 미정형관계위치

отложить на потом(후날로 미루다), дожить бы до послезавтра(모레까지 살았으면), жду с позавчера(그제부터 기다리고있다) — 부사관계위치

여기에서 명사가 그 대용어인 인칭대명사로 교체되는것을 볼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전치사들은 인칭대명사와 결합되지 않는다.

례: ○ Он подошел к дому, но входить в него не стал.

(그는 집으로 다가갔으나 거기로 들어가려고는 하지 않았다.)

○ Болезнь оказалась серьезной, и из-за нее я не смог поехать на Урал.

(병은 위급했으며 그리하여 나는 그것때문에 우랄로 갈수가 없었다.)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장소와 인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결합때 자유롭게 인칭대명사로 교체되지만 《Сегодня среда, а в среду/а по средам у меня семинар.(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에/수요일마다 나에게서는 학과토론이 있다.)》와 같이 시간과 상태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결합때에는 인칭대명사로 교체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문법적관계 특히 비교의 관계를 표현하는 전치사들과 수단의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을 리용할 때 인칭대명사의 대리자로 소유, 지시, 규정대명사들이 쓰이게 되

는것을 볼수 있다.

례: Он взял лейку и полил из нее цветы.

(그는 물뿌리개를 쥐고 그것으로 꽃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Он взял нож и с его помощью открыл замок.

(그는 칼을 쥐고 그것의 도움으로 열쇠를 열었다.)

여섯째로, 중복어법의 구성요소로서 전치사가 확대된다는것이다.

전치사와 함께 명사전치격으로 장소의 의미를 나타낼 때 동사 находиться(위치하다, 자리잡고있다)의 부동사형태로 쉽게 확대되게 된다.

례: Находясь в Армении, он совершил героический подвиг.(아르메니아에 있을 때 그는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 В Армении он ... (아르메니아에서 그는 ...)

이러한 현상은 в состоянии аффекта / находясь в состоянии аффекта(흥분된 상태에서/흥분된 상태에 있으면서)와 같이 《상태의 의미를 가진 전치사+명사》결합에서도 있을 수 있으며 будучи в Армении / будучи в состоянии аффекта(아르메니아에 있으면서/흥분된 상태에 있으면서)와 같이 부동사 будучи의 쓰임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학생들이 로어전치사와 그 형태적특성, 문장론적쓰임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정확히 활용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